

토크 녹취록

패널 : 이동근 작가

2019. 10. 19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백경호 안녕하세요. 저는 백경호라고 합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저랑 같이 작업실을 쉐어하고 있는 동료, 이동근 작가라고 합니다. 주말인데 아티스트 토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캔버스 공간을 사적 공간이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제가 사유하는 바를 풀어 놓으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구성도 해보고 지우고, 보태면서 화면을 구축하고 있어요. 전시하게 된 배경이나 그때 지니고 있던 생각들, 회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생각들을 작업을 통해서 형상화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해왔던 작업들은 앞에 보이는 원형 캔버스와 사각형 캔버스를 조합해서 사람의 형상을 바탕으로 삼고 그 위에 회화를 제작하는 연작을 해왔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스마일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걸 따와서 스마일 피규어라고 연작 제목을 붙였고, 이 연작을 3~4년 동안 지속해 오고 있어요.

이 전시에는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조각, 드로잉도 있고, 캔버스 회화 작업도 있고, 전체 모양이 변형된 회화 작업도 있습니다. 저는 스마일 피규어 연작으로 전시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에 제가 규정하기 힘든 것들이 있었어요. 우선 사람 형상이 나에게 뭘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객들이 무언가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작업하면서 사람 형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연작 작업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감축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저는 작업이 끝날 때마다 스스로 되문게 되었습니다. 회화이지만 회화 형태가 사람의 형태로 귀결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아직도 규정하기는 힘들고 저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어 말고 작업으로 분화해서 제가 생각하는 장면들을 전시로 구성할 때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전시된 작업들은 그 프레임에 대해 제가 가졌던 생각이나 연작을 초기에 진행할 때 사람 형상으로 선택하게 되었던 배경들을 지난 시간으로 되돌아가면서 작업들로 추려봤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이 연작을 중간에 조금 쉬었지만 가장 먼저 시도를 했었던 때가 2011년도였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아가 조금 생기잖아요. 학교에서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고 학습되었던 것들이 괜히 저를 구속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 반동 같은 마음을 작업에 적용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PPT를 보시면 비슷한 시기에 했던 작업인데, 초기의 회화 작업입니다. 당시에 저는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을 작업에서 표현할까를 그 당시의 감정 상태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뭘 느끼고 있는지. 초기에 이런 형식의 작업을 할 때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회화로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사유를 통해서 조용한 무대 위에 내적 내러티브와 조형 요소로 간추려서 회화로 화면을 구성하곤 했었어요. 당시에 제가 해왔던 작업들을 보면서 정작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은 내러티브나 사회에서 대입할 수 있는 오브제나, 간접적으로 표현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필터 없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내러티브라던지 비유적인 현실적인 배경을 걷어내고 내면의 풍경, 심리적인 풍경을 드러내는 회화 작업을 시도하고 싶었어요.

김인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필터를 걷어 낸다는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 하게 딱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상상하는 풍경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본인이 말하는 필터를 없앤다는 게 자세히 무슨 뜻인가요?

백경호 저도 이 그림을 계획할 때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감정들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처럼 구성요소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그것들을 콜라주처럼 붙이고 하면서 구성을 했습니다.. 보는 관객들은 이 안에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것들을 추리하면서 그림을 보는데, 오히려 그림 안에 있는 붓질이나 어떤 흔적이 단순히 이 안에 있는 인물의 표정들에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했던 생각은 내러티브를 없애고 서사구조가 없는 추상적인 회화

를 해보고 싶었는데, 다는 아니지만 잘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막연한 상태에서 추상적인 회화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죠.

김인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한 점은 작가의 입장과 보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얘기의 필터는 본인의 필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작가의 언어로만 쌓여 있어서 상징적이거나 모호한 이미지 같은 느낌이 들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장치를 다 걷어내고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이동근 옛날부터 옆에서 봐 온 제 입장에서는 저기에 있는 도상들이나 상징 이런 것들 자체가 처음에는 저도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이야기가 전달되던 자체적으로 큰 흐름이 있든지 '중요하다,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보니 어느 순간 작업할 때 뒷모습에서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특이한 친구가 있었는데, 블록(레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블록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깐 하나의 블럭마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섞여서 난잡해진 것을 자기 세계로 재구성하는 묘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한테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분명 뒤에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으로 구성해낼 때에는 자기 세계로 완전히 자기만의 특별함이 구성되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가져오는 최종적인 알고리즘 같은 게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백경호 당시에 저는 망상이나 공상에 빠져 좀 힘들어진 때가 있었어요. 상상을 통해서 제 일상으로 이야기도 만들고 회화가 계속 생겨날 수 있으면 지속했을 텐데 제가 어떤 감정 안에 갇힐 때도 있고 오랫동안 이렇게 공상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만드는 회화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당시에 조금 힘들었어요. 재미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창문처럼 들여다보기 위한 화면을 만드는 것보다 캔버스를 제가 핸들링하면서 가지고 놓고 싶고, 오브제처럼 다루면서 공간 위에 설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작업실을 두리번거리다 보면 저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원형 캔버스와 사각형 캔버스가 눈에 들어왔고 이것을 가지고 마치 사람 형상을 퍼즐처럼 맞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초기에 만들어봤던 것들이 PPT에 보이는 팔과 다리가 달린 사람 형상이고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색종이로 해봤던 것들이에요.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될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스운 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드는 본연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해보기로 했죠. 그때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임의로 만들고 그 안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니 조금 더 편안해졌고 그 이전에는 구성이, 색이, 표현이나 서사 등 너무 고민해야 할 것이 많았는데 사람을 구성하는 부분을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뭐든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해봤던 시도 중에 제 주변에 있던 <모든, 함께, 변화>2011라는 제목의 왼쪽 작품입니다. 제 가족 중에 의문이 드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왜 그럴까'하는 그 사람의 특징들을 글로 적어보고 조형 요소로 변환해 그리고 구성했어요. 바탕이 사람의 형태라 그런 시도를 해봤어요. . 오른쪽의 작업은 <사생아>2012라는 제목의 작업인데, 웃는 표정이 그려진 원형 캔버스를 들고 작업실을 돌아다니면서 매칭될 만한 그려진 그림들을 찾아봤습니다.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면 둘을 이어 붙이면서 유희적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김인선 painted canvas on canvas라는 건 캔버스 두 개가 붙어 있어서 표현된 건가요??

백경호 얼굴 부분을 천에 그렸다가 그렸던 부분을 캔버스에 붙였던 거였어요. 캔버스를 데리고 다니고, 가지고 놓고 오브제처럼 인식하면서 설치 방식을 다양하게 해보고 '공간과의 관계'에 대한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한 작업을 가지고 여러 전시에서 다르게 설치해보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사진 속 공간은 2012년도에 했던 개인전에서 자투리 공간이었는데 그 당시 작업 중에 스스로 자투리로 인식되었던 작업이 있었어요. 공간과 작업이 특성상 잘 맞는 짝이구나 생각하고 공간과 매치를 했어요. 이 당시에는 제가 작업을 많이 하기보다는 한 작업을 하고 각 부분들을 해체하면서 설치도 해보고 설치 방식을 변화를 주면서 제가 만드는 이 오브제 같은 회화의 쓰임새를 알아보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것에 골몰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시장 말고도 다른 곳에 쓰일 수 없을까. 아파트에도 걸어보고 싶고, 길을 걷다가 공터 같은 곳이 보이면 설치해보고 친구들한테 잡아달라고 하고 사진 작업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이 회화가 정체불명의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움도 있었지만, 다음이 계속 알고 싶잖아요. 이때는 설치 방식을 다양하게 하면서 그걸 알아보려고 했었죠..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이 2011년도, 2012년도에 실험을 보여준 사진이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2012년도에 이걸 멈췄어요. 연작을 멈추고 그다음에는 다른 종류의 회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2016년도부터 이 연작을 재개하고 있는데, 지난 작업을 돌아보다가 그쳐서 아쉬웠던 것들을 찾아서 다시 해보자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했던 선택들이나 작업이 드러내는 성격이 저란 사람을 닮은 것 같아서 현재까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토크 방향이랑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인선 생각했던 토크 방향은 무엇이죠?

백경호 주고받는 거요.

이동근 주고받으려면 틈이 있어야 할 텐데 계속 하니깐..

김인선 그런데 저렇게 사람 모양을 해왔던 게 인기도 많았고 재밌었잖아요.

이동근 저도 재미있게 생각했어요.

백경호 제가 느끼기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재미있긴 한데 뭐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읽기가 힘든 작업이 돼서

김인선 아플리에 에르메스 전시(<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2017)에서 여러 개를 한 벽에 설치했을 때 저는 재미있게 느꼈거든요. 저 작품들이 공간을 압도하는 느낌이었고 백경호 작가가 다 이겼네 하는 느낌도 받고.. 굉장히 높은 공간이었는데 작품들이 밑을 내려다보는 느낌, 우리를 쳐다보는 느낌 자체가 압도적이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 전시 때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백경호 미술에 대한 반응은 미술인보다 일반인들이 더 자유롭게 느끼시는 것 같고 전시를 할 때는 미술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반응은 단편적이었어요. 색이 예쁘다. 화사하다. 표정이 이상하다.

김인선 일차원적이고 시각적인 부분들이요. 이동근 작가님은 어땠어요.

이동근 개인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 작업 자체를 충분히 즐기기에 적합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작업실에서 작품을 보았을 때는 공간에서 더욱 지배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데, 같이 전시하는 다른 동료 작가들의 작업에 배경처럼 느껴진 게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인선 저랑 반대로 느끼셨네요.

이동근 너무 다 이기면 가끔 물러서기도 하니깐요.

김인선 저 전시 보신 분 계세요?

백경호 2017년에 했던 그룹전이에요.

관객 저는 너무 좋았어요. 다른 작가님들은 공간에서 작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물리적으로 들어왔는데 백경호 작가님은 완벽하게 지배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감동적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백경호 작가님이 못 잡은 게 김희천 작가님인 것 같아요. 김희천 작가님은 공간을 가상으로 풀고 있고 시간으로 풀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전시장에서 다른 물리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시선 자체를 장악했다고 생각해요.

백경호 아뜰리에 에르메스 김윤경 큐레이터님과 사전 대화를 하고 제가 전시에서 말았으면 하는 임무나 얘기를 하는데 생각나는 단어가 '벽화'였어요. 기획자분은 저한테 아마 전통적인 미술관에서 회화가 가지는 그런 면을 저를 보면서 전시 구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벽에 그림도 걸고 벽화 놀이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였고, 제 작업을 아시는 분이 기획하시는 것이니 제게 원하는 부분이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절충해서 했었죠.

김인선 저는 전혀 벽화처럼 안 보이고 신전에 석상들이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동근 최근에 저 얼굴들이 조금 다 웃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하는 표정들이 얼굴들에 더 있었는데요. 저 사진에도 피를 흘려도 웃고 있고 미소를 짓는 것이 최근에 웃는 사람이나 그런 분위기의 사람 형상을 전제로 한 구성이 나오는 생각을 했었는데 표정이 바뀌면서 형태가 바뀌고, 구성이 바뀌면 느낌과 생각도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경위로 바뀌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백경호 원래 웃고 있었어요. 연작할 때 반복하는 게 하나인데, 표정입니다. 웃고 있는 표정인데 저한테 사실 멧쩍은 웃음이에요. 제가 사각형 캔버스 위에 머리를 달고 사람 형상으로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제가 회화를 할 때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댈 수 있는 형식적인 장치였어요. 모순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림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스타일이 없는 것도 스타일이지 하면서 자기변호를 하기도 했어요. 동시에 스타일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자기가 구축하는 형식에서 안정적으로 회화를 탐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처음에 머리를 달고 결과적으로 작품 외형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각형 캔버스 위에서는 제가 유화 물감과 다양한 물감들을 가지고 회화적인 표현을 쌓아가면서 구조를 만드는 실험을 자유롭게 펼치고 싶었어요. 대신 화면마다 연결성, 연속성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하고 싶다는 바람이 컸죠.

김인선 화면마다의 연결성이란 것은 저 사각형 하나 하나의 연작에 대한 얘기인가요.

백경호 어떤 작업이 다른 작업과 연결되는 것이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고민하고 싶지 않았고, 화면마다 무작정 저질러보고 싶었어요.

김인선 이 얘기를 들으니깐 생각나는 게 처음에 저희가 PT & Critic을 할 때 작가 작업실을 몇 번 방문하거든요. 근데 백경호 작가의 작업실은 그때 강석호 선생님이랑 갈 때마다 작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를 몇 달 앞두고 갔을 때 작업을 보니 또 바뀌어 있고 전시 때 또 바뀌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계속 바뀌는 게 자연스러워서 아 이 작가의 스타일은 우리가 이런 방향이구나 이해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백경호 제가 작업 하나 변화하는 과정을 사진들을 모아서 가져왔어요. 앞에 걸려 있는 변화과정인데 가끔 핸드폰으로 찍어요. 전과 후를 보려고요. 제가 이렇게 찍고 보면 내 그림이 경제적인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괴롭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다 지우는데 이걸 남아있어서 가져왔어요. 처음에 계획이 선명하게 있었으면 그걸 수행하면서 회화를 하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제 안에 있는 걸 캔버스에 쏟아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회화로 풀어보고 싶다는 바람이 큼니다. 근데 무작정 쏟아내기보다는 다층적으로 화면을 끌고 가면서 제가 끌어당기고 싶은 측면은 당기고 어떤 부분은 밀어내면서 화면을 구축해요. 그림을 전개하면서 사실 그냥 물감이고 붓질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떤 흔적들은 제가 친밀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친밀감을 느끼면 그곳에 시선이 향하고 응시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친밀함이 느껴지는지 그러다 보면

그 흔적을 조금 더 정면에 세우면서 그거를 주축으로 화면을 다시 재구조화하면서 작업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림 하나를 그릴 때 여러 그림을 지나가면서 회화가 완성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김인선 이동근 작가님. 옆에서 계속 보시면서 기분이 어떠하신지.

이동근 작업실에 들어갈 때마다 보면 또 바뀌었네. 하는 생각이 들죠.

백경호 옆에서는 과도기적이라고 하는데, 인정했죠.

이동근 순간마다 바뀌는 것에 대한 궁금증 같은 건 있어요. 왜 저게 저기에 들어가야 하는지 저런 걸 계속 보니 블록 쌓기 같은 느낌을 받는데 나중에 언젠가 백경호 작가한테 들은 얘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을 안 할 것 같다가 갑자기 비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묘비처럼 설명해줬는데 순간마다 묘비의 어떤 문구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순간의 감각, 감정, 선택 이런 것들 말이죠. 순간의 감정에 집중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자율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작업에 손을 떼는 순간에 '죽었다' 이런 느낌, 묘비라고 하니깐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인선 글을 쓸 때도 초안을 써놓고 계속 변경을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했다가 바꾸고 나중에 최종본을 보면, 처음에는 아예 노출하기 싫은 글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글로 끝을 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작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거고 생각해요.

백경호 그렇죠. 계속 수정하면서 글은 발전되잖아요. 작가가 연작을 하는 이유가 연작을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 텐데, 제 경우는 과정에서 많이 고쳐요. 그 부분은 제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이동근 작가가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저도 사실 그림에 대해서 계속 이유를 찾다 보니 계속 고치는 것 같다고 애매하게 대답하였죠. 어떤 부분을 남겨야 하는 이유나 여기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이유나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미지 변화가 많이 생기곤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가로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김인선 작가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글을 쓸 때 단락 자체를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심하게 변경을 해보는 타입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관객 다 다른 프로세스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회화를 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순간 대면하는 것과 저렇게 보는 것과는 다른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김인선 저는 얼굴이 떨어졌다가 붙어있다가 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 얼굴은 왜 떼셨어요?

백경호 집중에 방해가 되어서요. 잘 안 풀리는데 계속 옆에 있어서 거슬리잖아요.

관객 작품이 바뀌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백경호 7~8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3개월 이내에 그림을 그리는데, 항상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몇 세션을 통해 그려요. 한 세션 그리고 건조하다가 다시 그리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에 몰두하기 힘든 일이 많았어요. 한 번 흐름이 끊기면 다시 회복하려면 화면을 전체적으로 만져야 하더라고요. 원래의 그림 그리던 리듬을 회복하려면 한 부분만 만져서 되는 게 아니고 한 부분을 만지면 다른 부분 하고 연관되다 보니깐 다른 부분도 다시 만져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김인선 지금 이게 최종본을 만든 건가요? 만족하세요?

백경호 원래는 한쪽 공간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수정을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이번 전시에는 다른 스타일의 회화를 같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머리가 없이 여기서 여러 층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좀 더 회화적 표현이 강조된 회화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서 전시 구성할 때 어떤 작업들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 작업을 펴봤는데 어떤 지점에서 안정되어 보이는 게 있었어요. 공간에 처음 왔을 때 관객들이 이 그림부터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시를 했어요.

관객 총 여덟 세션으로 사진을 찍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백경호 사진을 찍어서 보는 이유는 제 선택이 사실 화면은 컴퓨터로 다뤄진 이미지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매사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제가 어떤 선택을 했고 결과가 어떤 변화로 이어졌는지 비교하려고 사진을 찍거든요. 회화를 할 때 순간적인 선택을 하는 감각을 길러야 하더라고요. 밀그림을 재현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유화물감을 주로 사용하는데 물감이 덜 말랐을 때 표현을 하기도 표현할 때마다 이례적일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아니면 다시 재현되지 않는. 작업하면서 계속 저의 즉흥성이 보이기도 하고 유용하게 쓰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지우거나 다시 추가하면서 화면에서 구조를 찾고 있습니다.

김인선 두 번째 작업을 예로 들어서 첫 번째 작업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사진을 찍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좀 더 바꿔볼까 하고 더 그리고 사진을 찍는 순간,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에 찍었을 텐데 '왜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찍었을까요.

백경호 관찮을 때는 사진을 찍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서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이동근 저게 최종이면 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백경호 더 해야지 하다가 가지고 왔다니깐요. 사진이 많이 찍힌 건 되게 안 좋은 건데..

김인선 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찍은 것들의 흔적이네요.

백경호 뭐가 잘 안되면 렌즈, 화면을 통해서 거리를 두고 보고 싶어서 찍게 됩니다.

그동안은 제가 전시를 하면 제가 할 일은 회화로 끝났으니, 공간에는 달리 설치를 하거나 건드리지는 않고 덤덤하게 회화 작업을 거는 편이었어요. 이번 개인전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다양한 형태나 방식의 작업으로 구성을 하니 재미있기도 하고 어색한 점이 있어요.

김인선 이 스페이스에서 다양한 걸 하는 게 어색했다는 거군요.

백경호 처음에 봤을 때 한눈에 전시 공간이 보이니 어떤 형태의 소름 같은 보여주는 공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김인선 저희 공간이 방배동에 있을 때는 지금보다 네~다섯 배는 컸었거든요. 갑자기 확 작아진 상태, 변화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백경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훨씬 예전부터 전시를 잡아왔기 때문에 공간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가 너무 작은 곳에서 확 보여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사를 오게 되어서..

백경호 바로 시선이 한 번에 모든 공간을 볼 수 있고 중간에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입체 작업도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김인선 입체 작품들은 이 공간의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백경호 이유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죠. 다음 사진은 입체 작업의 과정들이에요. 원래 평면 드로잉을 입체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했었고 제가 평면, 회화를 오래 해서 그런지 처음 입체를 만드는데 납작하게 결과가 나와서 공간에 세워보니 너무 옆모습이 볼륨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옆면만 보고 볼륨을 줬거든요. 좀 더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선을 이어서 연결해서 만들게 하고..

관객 저는 개인적으로 조각과를 나온 친구들이 하는 조각이 아니라 선입견이 없이 그냥 절실하게 입체를 세워놓은, 구축된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신선해요.

백경호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생각을 했었고..

김인선 왜냐하면 너무 회화 작가의 입체인 거예요. 조소과인 제 입장에서는 덩어리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평면적인 입체여가지고..

관객 이집트 조각 같아요.

김인선 그게 재미있다는 생각하긴 했었어요.

백경호 제가 드로잉을 바로 입체로 옮기려고 하니 동세 없이 평면적으로 하니깐..

김인선 3차원이 아닌 2차원적인 조각이죠. 조각인데 2차원적인..

백경호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옆에 있는 이동근 작가가 만들어 줬어요. 미루고 있었는데 저러다 안 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자기가 한 번 만들어 주겠다고..

김인선 전부 이동근 작가의 프레임이에요?

백경호 네. 저기에 캔버스를 씌워서 그림을 그렸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김인선 보통 입체를 만들 때는 공간을 세워서 만드는데 저 그림처럼 눕혀서 만드니 특이하게 나오죠.

백경호 그렇게 나오는 과정을 극복하면서 너무 볼륨없이 납작하다 하면서..

관객 프로세스가 좋은 것 같아요. 저걸 안 봐도 저걸 그렇게 만들었겠다는 짐작이 되는, 시간과 과정 같은 것들이 묻어있는 느낌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것들에 의한 색도 좋고요.

백경호 채색은 안 했고요. 채색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채색된 장지를 뜯어서 붙였고요. 제가 붓질을 하면 되게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릴 것 같아서..

김인선 전시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조각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객 보통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수업으로 하거든요. 근데 감동적인 과제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재 아닌가 하는. 학생이 아니라 작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백경호 회화를 계속 하다 보면 저는 외부의 시선이나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어요. 몰랐을 때는 자유로울 때가 있는데 전시를 해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의 작업에 대한 생각을 듣다 보면 작업할 때 어떤 뷰들이 머리를 맴돌 때가 있어요. 의

식하게 되고. 그게 좀 제약이 될 때가 있는데 안 해본 걸 해볼 때는 머릿속에서 외부에서 오는 부분들이 없어서 편한 게 있었어요.

관객 저는 개인적으로 11, 12년도에 하셨던 작품 중에 잠실체육관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가다가 뛰어 올라가는 그 작품 <너와나>2011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김인선 저도 좋아해요. 가운데의 문어가 담장을 넘어서 움직이는 느낌이 재밌어요.

관객 전 전체적인 화면에서 모든 요소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김인선 백경호 작가님이랑 이동근 작가님 두 분은 흥대 동기예요?

이동근 아니요. 학부 때에는 안 친했었어요.

백경호 밖에는 집회로 어수선하고 토크도 어수선하네요..

김인선 저는 이 두 분을 대학원 수업 때 만났는데 둘다 비슷하게 특이한 거예요. 특이하고 재미있는 친구들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PPT 자료는 끝난 것 같은데 이번 전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경호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스마일 피규어 연작, 다시 바라보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나한테 사람은 뭐지. 이런 질문이나 회화의 바탕으로 사람을 선택했던 이유나, 연작 초기와 현재, 이미지의 변화, 바탕에 대한 인식 등 자문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하는 것 말고 드로잉을 통해서 제가 다시 사유해보려 했었습니다. 드로잉을 바탕으로 입체 작업으로 전환을 해보기도 하고 제가 했던 이 연작을 소재로 회화로 진행을 해보는, 전시를 계기로 다양한 갈래로 분화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려 했었어요. 이다음에 어떤 한 종류의 작업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유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사유의 궤적들을 보여줄 방법으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근 백경호 작가의 작업을 옛날부터 지켜보면서 인상 깊게 봤던 건 '깊이감'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평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실제 공간에서 깊이감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구성하고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회화 안에서 싸우면서 회화 안에 있을 수 있는 깊이감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떤 쌓임일 수도 있고 반대로 드러남일 수도 있는데 평면적으로 조금 더 실험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빠지게 되면서 평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최근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제 감상이었고 얼굴이 빠지게 되고 친구들이 한둘씩 나오게 되는 모습도 재미있는 관점 포인트라서 이 부분이 아예 공간 자체로, 오브제로서 그전에 생각했던 그 감각과 평면 안에서 생각했던 감각, 두 개가 두 세가지의 갈래로 나뉘면서 실험의 폭을 넓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보고 싶은 백경호 작가의 모습은 평면 안에서 앞뒤로 쪽쪽 밀어내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레이어의 힘과 해소가 되지 않는 공간적 감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풀 것인지 단서를 살짝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스텝으로 그 가치를 확장할 지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인선 개인적으로 작가노트에서 흥미로웠던 게 플로어 플랜 뒤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형언하기 힘든 감각을 환기하는데 거기에서 표면의 질감의 성격도 부여하고 거기서 쌓인 어떤 것이 물질적으로, 저 화면이 그냥 이미지적으로만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이미지와 물질 간의 관계에서 의미 자체를 부여하기보다는 물감의 색이나 성격이나 저렇게 여러 가지 질감에 대한 실험도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미지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작가가 다루는 이미지가 물질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오브제를 만들어냈다는 시도를 한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오브제, 물질 이런 것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을까. 앞으로 디벨롭이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작가노트에서도 보였고, 전시에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려는 시도라는 느낌이 들어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의



깊이감이 평면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각적인 부분에서의 실험으로, 단순히 이미지를 다루는 회화 작가로 표현되기에는 형용사가 더 붙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동근 백경호 작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좋아한다는 게 표현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백경호 작가를 봤을 때 실존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금 있는 감각과 선택, 이런 것들을 지금 안에서 책임지려는 여러 가지 강건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은데,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지요. 작업 안에서 물리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볼 때 아무래도 감동을 줍니다.

김인선 이세준 작가 때 토크 패널로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살짝 느꼈었는데 이미지를 다룰 때 작가들의 태도나 본인의 작업에서도 '나는 회화 작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다루는 어떤 분야의 작업이다 라는 식의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고 할까요? 백경호 작가는 스스로 회화 작가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할까? 하는 의문이 두 분께 들어요. 세대가 저희 때랑 다르니 이걸 장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추상을 예전 20세기 때 추상과 다르게 접근하듯이 회화라는 장르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백경호 저는 본인을 회화 작가라고 의식하면서 작업하지는 않아요. 지금의 회화는 어떤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시대마다 회화를 보는 감각도 변하고 관점도 변하고 요구하는 지점도 변하는 것 같아요.

김인선 예전에는 '화백'- 이런 용어가 옛날 세대에서는 회화 작가한테 당연하게 쓰였는데 현재는 그걸 거부하잖아요. 화백이라는, 회화 작가라고 하는 것도 요즘 경계를 짓는 부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동근 작가 같은 경우에는 회화라고 저는 알고 있었지만, 입체적인 작업도 다루고 텍스트도 다루고 여러 가지 매체를 넘나드는데, 저는 아직도 이동근 작가는 회화를 전공한 작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근 모르겠어요. 평면 조형을 딱 정해 구성하고 안에서 하는.. 저는 캔버스를 보면 '멸균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하나하나씩 빈 곳에 엮어가는 그런 것들... 저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서요. 물리적 조건이, 재료가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서 그런지 최종적으로 평면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흔적을 한꺼번에 보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평면으로 돌리는 게 있었어요. 평면부터 시작해서 평면으로 마무리되는 사람과는 조금 나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아니라고 들고 싶은 것 또한 아니긴 해요.

김인선 앞세대에서 규정지어 놓은 것에 맞춰서 얘기하려면 거기에서 꼭 그런 테두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와 같은 기준들을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정의를 그 다음 세대에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맥락에서 드린 질문이었어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백경호 작가와 함께 한 아티스트 토크를 마치겠습니다.